

전력거래소 낙제점 ... 기관장 경고 조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빛가람혁신도시 11개 기관 중 6곳 '양호' '우수' (A) 등급 단 한 곳도 없어...임원 성과급 10% 이상 반납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1개 기관 가운데 6곳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한전 그룹사인 전력거래소는 낙제점인 '미흡' (D) 등급을 맞아 기관장 (이사장)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11개 기관 가운데 '탁월' (S)이나 '우수' (A) 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년과 같은 양호(B) 등급을 받았고, 그룹사인 한전KDN도 같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미흡(D) 등급을 받은 한전KPS는 두 계단 오른 B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총 6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4곳은 보통(C) 성적을

받았다. 혁신도시 11개 기관 가운데 1년 전보다 평가가 낮아진 기관은 전력거래소(C→D)와 방송통신전파진흥원(A→B),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B→C) 등 3개 기관이었다.

전력거래소 등 미흡 이하 등급(D, E)을 받은 17개 기관 가운데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기관장 15명은 정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역에 본사를 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B등급으로 전년과 같았고, 아시아문화원은 D에서 C로 한 등급 상승했다. 정부는 경영실적 평가와 함께 62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등급은 탁월(S)부터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나뉘었다.

한국전력과 한전KPS는 '양호' 등급을 받았고 한전KDN은 전년보다 한 계단 오른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보다 낮아진

혁신도시 경영평가 결과

(안은 감사평가 결과)

	2018	2019
한국전력공사	B	B
한전KDN	B(양호)	B(우수)
한전KPS	D(양호)	B(양호)
전력거래소	C	D
농수산식품유통공사	B(우수)	B(미흡)
농어촌공사	B(양호)	B(보통)
농림식품기술평가원	B	C
방송통신전파진흥원	A	B
인터넷진흥원	C	C
콘텐츠진흥원	C	C
사학연금	C(보통)	C(보통)

(자료: 기획재정부)

'보통' 등급을 받았고 사학연금은 보통으로, 전년과 같았다.

지난해 상임감사가 성비위 문제를 일으켰던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년보다 세 계단이나 강등된 '미흡' 평가를 받았다. aT는 지난해 7월 해당 상임감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올해 5월 신규 상임감사를 위촉했다.

정부는 기관·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나쁘다면 성과급을 덜 받게

되는 구조다.

성과급 지급률은 상대등급과 3개년 평균점수로 나온 절대등급 50대 50으로 나뉜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고동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기관 직원들의 경우 단체 협약을 거쳐 최소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을 권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109명의 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실사 등을 거쳐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 경영개선계획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는 안전평가 배점을 기존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강화했으며, 지역발전·상생협력·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평가 기준이 유지됐다. 또 4차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조달 등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도 반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소상공인 비대면 대출 서비스



이춘우 광주은행 부행장이 지난 3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부행장은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의 지목을 받은 뒤 이번 캠페인에서 정기집고운시티아이(주) 회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광주은행 제공>

지방은행 중 처음 시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지방은행에서는 처음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정책대출인 소상공인 2차 대출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며, 소상공인 1차 대출 수혜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비대면 서비스로 해당 신청기업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뱅킹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최저 연 2.9%~최고 연 4.0%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리질 수 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같은 필수 서류는 한꺼번에 모아 제출할 수 있다.

서류 및 사업장이 일치한 경우에도 필수 서류인 임대차계약을 사진 찍어 비대면 제출할 수 있다. 서류 제출에는 금융사, 공공기관, 정부 웹사이트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필요 자료를 추출해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스크래핑' 기술이 사용된다.

김재준 영업추진부장은 "지역 소상공인에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실시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금융의 디지털화에 앞서서 고객과 지역민에게 더 편리하고 신뢰받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주요 대형매장들, 지역 중소기업체와 협업 기획전 진행

광주지역 주요 대형매장들이 지역 중소기업체와 협업한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이슬렛 광주수완점은 오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지역 경제 살리기 상생장터'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롯데이슬렛 수완점은 지역 우수 창업기업들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

행사 기간 동안 선보이는 지역업체 상품은 총 100여 종이다. 이들 상품은 광주 소재 창업기업 '이어드림'이 개발한 정기구독 서비스 '꾸준'에 선보여지고 있다.

모바일 앱 '꾸준'은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뒤 올해 3월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우수 스타트업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기획전 대표 상품으로는 올밀크F&B 플레인요거트(500ml/5000원)와 가로주름의 각종 잼(100g/5900원), 해당촌 포기김치(350g/4500원) 등이 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추가 할인과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이충열 점장은 "이외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티백차, 커피, 디퓨저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번 기획전을 계기로 지역업체의 우수한 상품을 고객에 선보이는 장을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광주신세계도 광주디자인진흥원과 지난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매장 1층에서 '지역 우수 공예품 전시 판매전'을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5일 롯데이슬렛 광주수완점을 찾은 고객들이 '상생장터'에 마련된 100여 종의 지역 우수기업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호남동계청, 5만 업체 대상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호남지방통계청은 6일부터 오는 8월14일까지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약 5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9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조사이다.

연간 발표하는 기업활동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프랜차이즈조사, 법인기업구조조사,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월간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등이 있다.

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사업실적 등과 매장면적, 객실(석) 수, 연간 제품별 출하액 등 업종별 특성항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조사별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 공표할 예정이다. 이들 조사 결과는 산업별 구조변화, 산업연관표·국

민소득주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로도복권 (제91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11 12 31 33 38	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117,622,646	18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38,986,837	86
3	5개 숫자일치	1,233,580	2,718
4	4개 숫자일치	50,000	137,216
5	3개 숫자일치	5,000	2,183,337

예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7월호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여행 관광, 새로운 키워드를 찾아라

특집

뉴노멀 시대, 슬기로운 여름휴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야간관광 시도라, 삼림욕 만끽 남도 관광

문화 화제

서양화가 한희원 시화집 '이방인의 소묘' 출간, 전시

클릭, 문화현장 9-통영 윤이상 기념공원 "여기 윤이상선생이 살고 있다" 화제의 문화현장 청년들의 공간, 광주시민회관 FoRest971

여행이 만난 이 사람 '200경기 출장' 기록 광주FC 주장 여름

여행 초대석

'63년 외길'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 "영원한 광대인생을 살립니다"

우리방, 우리문화 ① 보물 '미암일기'의 집 담양 모현관

행복한 동행-번려동굴과 함께하기 ② 전문가에게 배우는 번려견 미용

머물고 싶은 전남 행복술 ④ 7월의 명품술 진도 관매도 해송술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경관의 완성-에필로그 매력적인 도시디자인의 대전제는 '사람중심'

전시 리뷰 김영화 <인생여행길>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③ 대중문화와 연예인의 서울 초집중화 문제없나?

문화 트렌드 지금은 '굿즈 전성시대' 팬덤 있는곳에 굿즈 있다

문화 특특 디자인 광주 색깔은 아트숍, 문화상품들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⑥ 뮤지엄은 박물관인가, 미술관인가?

씨목씨목 남도 한 바퀴-영광 보물 가득한 옥다굴을

-정통길과 서해바다 -애물깁고, 모싯잎 송편